



海外業界動向

'92년 세계무역 4% 성장

獨一의 5大經濟研究所의 하나인 HWWA(합부르크)는 최근 '92년의 세계무역은 약간 회복되어, 前年에 비교하여 4%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91년은 同3% 증가했다.

이에 의하면, 日本과 歐洲의 수입은 여전히 정체하지만 美國의 회복을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東南亞, 南美, 中東 등 개발도상국의 수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독립국가연합(CIS)은 國內, 해외 모두 경제활동이 정체인 데 대하여, 東歐는 서방으로부터의 수입이 증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방 통신업계의 CIS로의 진출 활기

전체 인구 2억 8,000만명의 잠재성이 있는 시장, CIS(독립국가 연합)는 통신의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치현실이 불안정한 상태이지만, 현시점에서 진출하지 않으면 뒤떨어진다는 의식이 서방 통신업계에서 강력하게 일고 있다. 서방 통신업계의 CIS진출은 ①기반 시설건설 ②위성통신 ③셀룰러 폰 구축의 3가지로 집약된다. CIS를 구성하는 15개의 공화국은, 구소련체제하의 통신관리 이원화가 붕괴, 독자적으로 전화망과 통신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각공화국 모두 서방업계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자국내의 통신

망정비에 결사적이다.

인구 1억 4,000만명으로 CIS 최대의 공화국인 러시아는, Alcatel, Siemens, Italtel의 구주 통신업계가 디지털 전화교환기의 현지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페테스부르크(구 레닌그라드)에는, Alcatel의 벨기에 자회사의 Alcatel Bell이 「System 12」를, 모스크바 동쪽의 이체부스크에서는 Siemens가 「EWSP」형 교환기를 각각 금년을 목표로 생산개시할 계획이다.

러시아공화국은 작년7월, 외국기업의 100% 출자자회사 설립과 외국자본에 의한 동공화국 기업의 소유를 인정하는 법안을 가결함으로써, 시장규모 확대와 함께, 서방 통신업계의 동공화국에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셀룰러 폰 분야에서도 핀란드의 Nokia, US West와 Bell Atlantic이 모스크바와 페테스부르크 등 대도시에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5,000만명 인구의 CIS 제2의 우크라이나공화국에는 미 ATT와 네덜란드 PTT 양 전화회사가 기반시설 통신망 구축에 대응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페인의 텔레트라가 우즈벱스탄에, Siemens가 베라루즈 등에 진출하고 있다.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발트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는 기반 시설 통신망에 US West, 셀룰러 폰에는 지리적 우위를 활용하여 스웨덴의 텔레바켓과, 핀란드 텔레콤이 현지기업과 합작으로 전화서비스 사업을 착

수하였다. 일본 기업으로는 일본전기가 2월, 러시아공화국에서 국제디지털 전화망을 수주, 소련해체후, 일본기업 최초의 본격적인 Project 수주를 실현시켰다. 위성통신의 진출도 많다. 러시아에는 US West와 ATT가, 아르메니아에는 ATT가, Northern Telecom은 아제르바이잔 등에 진출하고 있다.

CIS회사를 망라한 대규모적인 위성통신계획에서는 Bosh Group의 Art, 다이플러 벤츠산하의 2 Group, DASA, MBB 등 독일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불황을 모르는 미국의 소프트 업계

경기 혼미의 미국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업계는 작년에도 매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Software Publishers Association(위싱턴)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과 캐나다의 소프트웨어업계의 매출은 57억 1,000만불에 달하여, 전년의 45억 9,000만불에 비하여 24.6% 증가하였다.

특히 4/4분기는 호조를 보여 17억 7,000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33.6%의 증가를 보였다.

매출의 80%에 상당하는 45억 7,000만불은 MS-DOS용인 소프트이다. 애플의 매킨토시용은 14.7%에 해당하는 8억 4,080만불이었다.

용도별로는 워드프로세서가 11억 4,000만불, 표계산 9억 4,670만불, 그래픽 7억 2,440만불, 데이터 베이스 3억 9,680만불, 게임 3억 7,600만불의 순이었다.

성장률에서는 표계산이 35% 증가, 언어틀이 33.1% 증가(1억 7,360만불), 교육용이 25.6% 증가(2억 1,590만불) 등의 순이었다.

미국의 AVE테이프 시장

국제자기 광Media협회(ITA)는 최근 미국의 테이프시장 현상과 급후의 전망을 표명하였다.

ITA에 의한 미국의 작년 AV용 공테이프 시장 규모는 20억불, 내역은 가정용이 63%, 업무

용이 37%였다. 또한 DCC(Digital Compact Cassette)에 대해서는 장래성이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오디오 테이프의 '92년 시장규모는 약 8억 900만불, 공 테이프가 49%, 녹음 테이프는 51%였다.

오디오 공 테이프 시장은 수량으로는 작년의 5% 감소에 이어 금년에도 2% 감소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이 바이어스가 호조, 메탈 테이프와 합치면 금년의 시장의 44%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ITA의 DAT에 대한 견해는 비관적이다. 그 이유로서 기타 미디어와의 호환성이 없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91년의 DAT시장의 성장률은 42%로 대략 100만불 수준의 시장이었으나, 대부분 업무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년의 매출은 110만불 규모 정도로 머무를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DCC에 대한 견해는 밝다. 디지털 음질의 장점뿐만 아니라, DCC 플레이어로 종전의 아날로그 테이프도 들을 수 있고, 또한 처음부터 소프트도 동시에 발매되는 것 등에 의한

미국에서 VTR테크의 보급률은 이미 74%에 달하여, 최근 수년 미국에서 연간판매대수는 약 1,000万台 전후이다. 기종은 고급기종으로 전환되고 있다.

'91년의 VTR테이프 매출은 약 5억 9,100만권, 그 중 54%가 공테이프, 46%가 프로테이프이다. 미국의 VTR 소유자는 1년간에 평균 3.4개의 공테이프와 2.9개의 프로테이프를 구입, 포맷별로는 8mm가 40%, VHS가 43%, VHS-C가 17%를 나타냈다.

'91년의 VTR 공테이프시장은 수량으로는 5%의 신장을 기록했다. 포맷별로는 VHS가 3%, 기타(8mm, VHS-C 등)가 28% 증가하여, '91년 시점에서 기타의 테이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였으나, 금년은 11%에 달한 것으로 ITA는 예측하고 있다.

VHS테이프는 수량기준으로 3% 증가하였는데 기종별로는 고급형이 11%, 보급형이 2% 각

각 증가하였다.

금년도 작년과 같이 3% 증가가 예상된다. 기종별로는 고급형이 15% 증가, 또한 보급형은 별로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 급성장한 것이 카메라 일체형VTR테이프 시장이다. 전체적으로는 71% 증가한 2,600만개를 나타냈다. 포맷별로는 8mm가 81%, VHS-C가 61%로 각각 증가했다. 금년은 이 추세가 약간 누그러져, 전체적으로는 59% 증가할 것이다. 포맷별로는 8mm가 67%, VHS-C가 48% 각각 증가할 것으로 ITA는 보고있다.

대일 무역장벽 리스트

미 통상대표부(USTR)가 지적한 대일무역장벽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미·일구조협 의 ②관세 ③피혁·혁화 ④목제품 ⑤농산물 ⑥사료용 곡물 ⑦쌀 ⑧수산물 ⑨의약품·의료기기 ⑩식료첨가물 ⑪잔류농약 ⑫생선농산물 ⑬수퍼 컴퓨터 ⑭컴퓨터 ⑮인공위성 ⑯정부조달 코드의 운용 ⑰특허 ⑱상표 ⑲저작권 ⑳건설·설계·여행서비스 ㉑변호사 활동 ㉒공인 회계사 활동 ㉓보험 ㉔항만기금 기부금 의무 ㉕직접투자 ㉖반도체 ㉗전기통신 ㉘종이제품 ㉙板 Glass ㉚조선 ㉛항공우주 ㉜자동차 및 부품 ㉝소다灰 ㉞유통제도 ㉟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적 계약에 관한 심사 ㊱시행관행규제

미국 파이오니아사, 5년 연속 두자리 성장

파이오니아 일렉트로닉스(USA)는, 금년 3월말에 종료된 '92년후 결산에서 전년대비 14% 매출 증가로 '88년 이후 5년 연속 두자리 성장을 실현, 5년간 매출 규모를 배증하였다. 성장요인은 카스테레오의 시판실적이 CD, 카세트 제품 모두 호조로, 전년과 비교하여 18% 확대되었다.

작년 5월에 출시한 셀룰러전화를 추가한 카일렉트로닉스회분에서 20%의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Home Audio도 멀티 CD 제품이 신장하여 13%의 신장을 보였다. Projection TV로 대표되는 同社영상부문은, 고가상품의 신장이 둔화되었지만, LDP는 20% 증가하여 전체 매출증가에 공헌했다.

동사의 금년도 중점과제는, 카스테레오, Home Audio와 함께 CD제품의 점유율 확대에 한층 힘을 기울이는 한편, 시스템 판매의 재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업계점유율이 높은 카스피커는 금후 한층 더 높은 신장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가정용의 스피커 판매도 강화를 단행하였다. 작년부터 판매거점의 확대가 눈에 띈 LDP는 40%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

이동통신 일체형 카스테레오

셀룰러전화일체형 카스테레오가 미국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두에 선 것은 클라리온으로 2월의 CTIA(셀룰러통신공업회) Show에서 전시된 「CAL-1000」제품이 미국에서 판매 개시한다. 가격은 시스템구성에 의하여 1,500弗~2,000弗 전후가 예정되고 있다.

클라리온은 현재까지 카스테레오를 자동차 메이커에도 공급해 왔는데, 일체형은 당면 애프터마켓만을 겨냥할 계획이다.

獨 브나우퐁크트는 클라리온에 선행일체형의 「RCM-84」를 1월의 CES展에서 발표하였다.

필립스와 그룬디히의 제휴

유럽 최대의 가전업체인 Philips와 독일 최대의 AV업체인 Grundig가 제휴확대를 단행했다. 양사에는 Philips가 Grundig에 32% 출자한 투자형태이다.

금후 양사는 제휴를 강화함으로써, 구주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사가 제휴한 것은 VTR과 코드리스 폰이다. VTR은 Philips의 유력상품이다. 또한 Grundig는 AV기기 이외에 통신 및 사무기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VTR은 Grundig가 뉴로베르그 본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VTR본체, 헤드, 테크메카니즘의 생산부문과 개발부서를 Philips의 VTR사업거점이 있는 빈에 옮겨, 양사의 VTR용 핵심부품과 본체의 생산을 빈에 집중시켰다.

그러나 VTR부문을 통합해도 판매는 종전대로 양사의 판매루트와 브랜드는 변경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통합후의 신회사는 타지에서 OEM을 공급해 나아갈 방침이다.

Philips에서는 이번 제휴를 계기로 잠재적으로는 캠코더와 디지털 VTR 생산으로 이전할 생각이다. 또한 양사는 코드리스 폰의 제조·판매 합작회사인 필립스 그룬디히 폰크(PGF)를 설립했다. PGF는 Grundig가 69% 출자하였다. Philips측은 독일자회사 PKI가 합작회사에 자본참가하였다. PGF는 주로, 구주의 디지털식 코드리스 전화규격 DECT 방식의 전화기를 제조·판매하는데, 활동개시는 6월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Grundig는 VTR사업의 빈이전에 따른 뉴로베르그의 과잉 인원을 코드리스 폰 생산과 판매에 투입할 계획이다.

프랑스 Bull사에 재건의 움직임

프랑스의 컴퓨터 업체인 Bull은 최근, '91년의 실적을 발표, 적자액을 재작년의 절반으로 줄여 재건의 기미를 보였다. 적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금년도 적자해소노력을 부가, 흑자전환을 도모」할 의도이다.

동사가 최근 밝힌 자료에 의하면 '90년 67억 9,000만 Fr 적자에서 작년에는 33억 Fr으로까지 감소시켰다. 그룹의 매출은 3.2% 감소한 335억 프랑이었다. 적자감소 요인으로 동사는 생

산거점과 기구의 재편을 들고 있다. 지역별 매출에서는 북미 22%, 프랑스 35%, 프랑스를 제외한 구주 36% 기타 7%였다. 종업원 1인당 매출도 '90년의 77만 7,000 Fr에서, '91년은 83만 9,000 Fr으로 개선되었다.

Bull은 작년 세계 13개소에 분산된 공장을 프랑스와 미국 각각 2군데와, 이탈리아 1곳 등 계 5군데에 집약, 종업원도 작년말까지 9,000명을 삭감하였다. 자본의 이동에서는 美子會社 Bull HN Information Systems를 완전지배하에 두었다. Bull HN에 자본참가한 일본전기의 출자분 15%교환으로, CMB의 4.7%를 일본전기에 양도했다.

또한 연구개발(R&D)강화를 위하여, 재작년 매출의 10%를 R&D에 투자, 작년 9월에 동사에서 최초로 전세계 레벨에서 총합된 R&D 팀을 조직했을 뿐만 아니라 제품마다 이익을 산출하는 것을 겨냥한 Bull Systems & Product Devision을 결성 "Profict Center"로써의 임무를 수행해 나아갈 계획이다.

IBM이 Bull에 자본참가를 결정함으로써 IBM과의 관계를 깊게하여, IBM의 RISC(축소명령 세트형 컴퓨터)를 탑재한 워크스테이션도 곧 발매, 내년에는 IBM의 RISC Chip을 탑재한 워크스테이션을 자사 생산할 계획이다.

독일의 비디오 테이프 시장, 전망

독일의 비디오 테이프시장은 금년에도 두자리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크푸르트의 CIC 비디오사에 의하면 매출이 '90년이 27% 증가한 14억 마르크, 작년이 14% 증가한 16억 마르크, 금년은 10~20%의 신장이 전망되고 있다. 작년은 렌탈이 연 2억 610만권으로 10억 1,000만 마르크, 판매가 2,290만권으로 6억 4,000만 마르크였다.

특히 판매가 전년대비 113%의 증가를 기록, 앞으로의 시장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판매점의 수요도 45%가 오락영화, 이어

서 36%가 어린이용 영화였다. CIC는 파라마운트와 유니버설 양사에 의한 합작기업으로, 독일에서는 작년에 1억 마르크의 매출을 기록했다.

독일의 정보처리시장 전망

독일의 전자정보시장이 신장하고 있다. Messe Frankfurt사가 밝힌바에 의하면, 작년의 시장규모는 6억 마르크, 금년은 8억 마르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의 80% 이상은 온라인 정보로서, 금년의 매출 예상은 6억 8,000만 마르크였다. 그 중 3억 7,000만 마르크가 리얼타임정보, 1억 6,500만 마르크는 방송서비스정보이다. Data Bank의 이용은 1억 2,000만 마르크로, 작년의 4,000만 마르크에서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동사에 의하면 10억 마르크이상은 2~3년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Pen 입력형 컴퓨터 출품

三洋電機는 춘계COMDEX와 병행하여 개최되고 있는 Windows World의 「Windows for Pen」의 코너에서 새로운 펜입력형 컴퓨터를 출품했다. 금년 9월부터, 미국과 일본에서 동시발매를 예정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가격은 4,000불정도이다. 동사는 작년의 추계COMDEX에서 펜입력 컴퓨터를 출품했는데, 이 모델은 참고출품에 머무르고 있어, 실제로 시장에 출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PU는 Intel의 386SL을 탑재했고 OS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Pen용 「DOS 5.0」 Windows를 채용하고 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소형 마이크와 스피커가 장착되어 마이크로 음성을 녹음, 보이스 메일로 상대방에 전송하여, 수신자는 스피커로부터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사이즈는 가로 297mm, 세로 210mm, 두께 26.5mm, 무게는 약 1.7kg(전지 포함 중량은 약 2.1kg이다.)

소니의 3CCD방식 스틸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소니는 전자스틸카메라로는 처음으로 3CCD방식을 채용한 업무용 스틸 카메라 레코더 “프로마비카” 「MVC-7000」을 7월 1일부터 발매한다고 발표했다. 가격은 165만엔 예정이다. 전자스틸카메라는, 현상이 불필요한 즉시성, 간편성과 일반회선을 통한 원거리를 전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총화소수 41万的 CCD 3개 사용하여 충실한 색 재현으로 고화질 영상기록을 가능하게 하였다. 자체에 재생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소형·경량화를 실현했다. 크기는 168.2×114×140mm, 무게는 약 14.2kg이다. 교환렌즈방식의一眼래프트타입으로, 교환렌즈에는 10배, 6배 줌렌즈와 와이드 렌즈를 준비했다. 이것에 의하면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기동성이 우수한 촬영을 하고, 현장에서 재생하여, 휴대형전송기 등을 통하여 원격지에 전송된다. 보도 출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후지쯔, 미국 왕사의 SIMM기술 취득

미국의 컴퓨터 업체인 Wang Laboratories와 일본의 후지쯔사는 최근 메모리(기억장치)에 관한 Wang의 2건의 특허기술의 제조, 사용, 판매라이센스를 富士通가 취득하게 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동특허기술은 SIMM으로 불리며, 퍼스컴 등의 기억용량을 확장할 때, 메모리 IC를 하나의 기관에 고정시킨 것이다. Wang은 동기, 자본 전기를 상대한 소송에서 작년 8월에 승소하여, 그 후 후지쯔, 히다찌 등 일본 컴퓨터 업계의 대미제품수출을 중지하도록 미국무역위원회(ITC)에 소송하였다. Wang에 의하면, 현재까지 후지쯔, 히다찌, 마쯔시다, 오키 등은 특허료의 지불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